양양소식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22. 9
Vol. 328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문화재단	08 마을가는 길 양양읍 월리	12 양양군청 IN & 人 교육가족과

카메라를 대보세요

유년의 그림

송 현 정

미루나무 길게 누운 개울둑
어머니가 빨아 널은 속적삼이 눈부신 날
햇살로 그리던 유년의 밑그림엔
한 올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았지.

땀에 젖은 치마폭 어머니 무늬를
물살 깊은 여울에 헹궈내면
시름 대신 꽃잎이 떠내려가던 개울가
미쳐 그려 내지 못한 그 세월은
어느 강으로 흘러들고 있을까.

까만 씨 물고 있는 분꽃 웃음소리가
땅거미 설핏한 마당을 기웃거리며
어머니 살 내음 일렁이게 해놓고
그리다 만 밑그림에 덧칠하던 여름

채 마르지 않은 그때 내 그림이
질척이는 무게를 아직도 짊어지고
숨 가쁘게 개울둑을 오르고 있지만
지금도 저물녘 이면 창가에 아른거리는
그 개울물 소리

송현정

경기도 포천 출생
1997년 양잉문학 창립회장 역임

양양소식

Vol. 328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4 기획특집_ 양양문화재단

8 마을가는 길_ 양양읍 월리

12 양양군청 IN & 人_ 교육가족과

15 양양군민 진료 협력병원 안내

의기양양

16 의정소식_ 양양군의회 간담회 개최

18 향토사 이야기_ 영혈사(靈穴寺)의 영천(靈泉)에 얽힌 설화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건강 알리미_ 일상 회복을 위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_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급 안내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28호

| 발행일 2022년 9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 문화예술의 동력을 만들다

양양문화재단

한여름의 무더위가 스러지는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들으며 흥을 돋우고, 무료로 상영되는 작은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보는 한여름밤의 피서가 즐겁다. 시끌벅적하던 한낮의 더위와 태양을 잊고 여름밤의 피서를 즐기기에 요즘 양양이 가장 핫하다. 게다가 문학과 사진과 풍류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 양양에서의 여름이 더욱 즐거워진다. 요즘 양양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풍성해지는 이유는 양양문화재단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덕분이다. 앞으로 양양의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기대해도 좋겠다.

2022 낙산해변 비치 버스킹

버스킹, 영화, 피서지에서 즐기는 즐거움

올여름 피서객들이 가장 즐겨 찾은 해변이라면 양양 해변이 손꼽힐 것이다.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낮에는 서핑을, 밤이면 노래와 영화를 즐기며 피서지에서의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고 있다.

양양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낙산해변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2022 양양낙산비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7월말에는 '2022 낙산비치 버스킹 서머시즌'도 운영돼 낙산 해변에서 거리공연의 멋을 즐겼다. 버스킹의 주인공들은 서울 홍대거리와 청계천, 한강 등에서 활동 중인 서울거리아티스협동조합의 버스커 90여 팀을 비롯해 양양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 팀이다.

양양 작은영화관에서는 10월까지 매주 다채로운 장르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올해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지 공모사업'에 양양 작은영화관이 선정되면서 매주 금~일요일에 '가족이라는 세상'과 '컬처 온 스크린'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총 15편의 영화가 26회 상영된다.

영화는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엄마와 나', 애니메이션 '드림빌더', 예술의전당 공연실황 '명성황후' 실황중계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제작한 영화를 보고 감독을 만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화기획전 프로그램으로 '시인들의 창' 상영 후에 김전한 감독, '죽도 서핑 다이어리' 상영 후에는 이현승 감독이 직접 관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영화의 주제와 소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네마토크'를 갖는다.

양양 작은영화관 기획전

양양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

올해 양양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것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양양문인협회가 전국 130여 명의 문학 지망생이 참여하는 '양양 여름 시인학교'를 진행하는가하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는 회원 14명의 작품을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늘길 양양 – 아름다운 양양 풍경 사진전'이라는 테마로 양양국제공항에서 전시회를 연다. 또 '국악과 함께하는 해변의 향연', 양양 국악단 소리샘의 '찾아가는 민요 콘서트', 양양 생태사진연구회 '남대천 생명들' 사진전, '네 개의 감성 이야기 – 일곱 번째' 등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또한 양양의 마을마다 특

색있는 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 체험형 축제나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 양양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축제 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마을의 문화를 알리고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지역 문화재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광역문화재단은 전국의 17개 모든 광역 시 · 도에 설립, 운영되고 있고, 기초문화재단은 2020년 12월 현재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43.86%에 설립되어 있다. 강원도 내에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지역 문화 생태계에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주춤했는데, 올해는 지역의 문화 예술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지역 문화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은 양양 작은영화관 연중 위탁 운영 및 기획전, 양양송이축제(9.30.~10.2.), 양양연어축제(10.28.~10.30.),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또한 문화기획공연으로 오페라콘서트(6월)와 한여름 밤의 풍류(8월)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문화공연, "북(Book)돋는 양양" 등을 진행하며 문화 예술의 다양한 변주를 만들고 있다.

문화기획공연 – 한여름밤의 풍류

양양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양양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글 · 사진** : 편집부〉

2022년 아기연어 보내기 체험행사

문화기획공연 – 오페라 콘서트

양양문화재단 Yangyang Cultural Foundation

양양군

양양군 YANG YANG GUN

9월 공연/행사 정보

● 영화 ● 공연/전시 ● 축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31	1	2 ● 기획전 〈태어나길 잘했어〉 양양 작은영화관	3 ● 기획전 〈태어나길 잘했어〉 양양 작은영화관 ● 2022 양양 낙산비치버스킹 낙산해변 일원
4 ● 전통시장 양양 문화장터 공연 양양 다목적광장	5	6	7	8	9	10 ● 2022 양양 낙산비치버스킹 낙산해변 일원
11 ● 기획전 〈말임씨를 부탁해〉 양양 작은영화관	12 ● 기획전 〈말임씨를 부탁해〉 양양 작은영화관	13	14	15 ● 북돋는양양-양양음악앨범 양양 작은영화관	16 ● 그랑블루 영화제(예정)	17 ● 그랑블루 영화제(예정) ● 2022 양양 낙산비치버스킹 낙산해변 일원 ● 기획전 〈엄마와 나〉 양양 작은영화관
18 ● 그랑블루 영화제(예정) ● 기획전 〈엄마와 나〉 양양 작은영화관	19	20	21	22	23 ● 기획전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시네마토크 양양 작은영화관	24 ● 2022 양양 낙산비치버스킹 낙산해변 일원 ● 전통시장 양양 문화장터 공연 양양 다목적광장
25	26	27	28 ● 문화가 있는 날 〈이타미 준의 바다〉 양양 작은영화관	29	30 ● 2022 양양 송이축제 (~10/2) 양양남대천 및 전통시장 일원	1

전화문의 : 033-671-3802~3
http://www.yycf.or.kr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村村

양양읍 월리

양양읍 남쪽의 첫 관문이 되는 마을
청정 자연을 품은 녹세권 보유
양양의 '강남'을 꿈꾸며 고대하는 미래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9월이다.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저녁'이라는 뜻을 가진 추석을 앞두고, 은은한 달빛은 가을의 운치를 절정으로 이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月)'은 낭만의 상징이다.

마을 이름에 달 하나가 크게 걸린 월리(月里)는 그 지명만 들어도 고요하고 동화적인 느낌이 든다. 하지만, 달은 변신의 귀재라고도 하지 않던가? 기울어졌다 다시 차오르는 달과 같이, 월리도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월리(月里)를 찾아라

처음 마을 이름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인 마틴 핸드포드가 그린 '월리를 찾아라'라는 숨은그림찾기 책이 생각났다.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빨간 모자와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월리'를 눈이 빠지게 찾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양양에서 '월리'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양양읍 지형은 세모꼴을 이루고 있는데, 월리는 양양읍의 남쪽 모서리가 되는 마을이다. 말하자면, 양양읍으로 진입하는 관문 중 하나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양양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남대천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니,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다. 월리 마을회관에서 양양교를 건너 양양군청까지 자동차로 5분, 도보로는 10여 분 정도가 걸릴 만큼 양양 시내 중심부와 가까운 마을이다.

「조선 때 양양부의 '건넛마을'이라고 해서 건널 월(越)자로 지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마을 산이 달 형국이라고 하여 월리(月里)로 바뀌었다. 풍수지리상 마을의 뒷산이 반월형으로 생겼다고 하여 1909년에 달 월(月)자로 개칭했다.

– 출처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이름에 정말 힘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월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부분만큼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과거를 발견하게 된다. 38선에서 북쪽으로 17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월리는 수복지구(38선 이북 지역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속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에 북한군이 월리의 아카시아 숲에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위장한 탱크 수십 대를 숨겨놓고 남침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 긴박하고 위험했던 그 당시 상황이 짐작된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시련을 남겼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국군과 북한군이 번갈아 진격과 후퇴를 반복하는 동안 주민 간의 갈등과 균열을 겪은 마을들도 많았다.

월리 주민들은 암묵적으로 신뢰를 선택했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둠의 시간을 극복했다. '이 동네에서는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일이 없다. 누구든 이 마을에 오면 득이 되지 손해는 없다.'라는 이준식 노인회장의 말처럼 월리의 주민들은 따뜻한 공감대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해 왔다. 어쩌면 그런 신뢰와 수용의 자세가 어둠을 밝히는 달빛처럼 이 마을을 오랜 세월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닐까?

강과 숲을 두루 보유한 녹세권

요즘은 특정한 환경 요건과 맞닿아 있는 주거 공간을 일컬어 '~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월리는 강과 숲을 두루 갖춘 자연 친화적인 '녹세권' 마을이다. 남쪽에 '구탄봉'이 솟아 있고, 북쪽과 서쪽 경계를 따라 남대천이 흐르는 곳에 있어 자연이 선사하는 여유와 힐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특히, 남대천은 월리 주민들에게 추억과 애환을 동시에 소환하는 공간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월리 사람들은 남대천에 사는 황어나 연어, 은어 등을 잡아 배고픔을 달랬다. 게다가 남대천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이라 예전에는 천렵으로 뚜거리를 잡아 강변에 모여 매운탕을 끓여 먹는 일이 예사였다.

양양의 유명한 뚜거리탕 맛집이 월리에 모여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올해 77세를 맞이한 이하형 어르신은 어렸을 때 소를 몰고 남대천으로 나갔던 기억을 떠올린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를 길렀고, 그게 큰 재산이었어요. 어릴 때, 소를 밧줄에 묶어서 남대천으로 나가곤 했어요. 소들을 풀어 놓으면 버드나무 잎을 뜯어 먹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소를 끌고 나온 다른 동네 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았죠. 예전에는 남대천에 해당화가 많았는데, 먹을 게 없을 때는 율구(해당화 열매)도 많이 따 먹었어요. – 이하형 님」

남대천이 아련한 향수를 품고 있다면, 구탄봉은 걷기 좋은 산책로로 새롭게 떠오르며 주민의 자랑이 된 명소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지술가 도선이 오대장맥을 타고 오다가 산세를 바라보니 반드시 명당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 명당을 찾고자 아홉 번 올라 아홉 번을 탄식하였다'라고 전해지는 구탄봉은 2009년에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가벼운 산행이나 운동 코스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양양 시가지의 풍경이 으뜸으로 손꼽히는 데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 지척에 있어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조건과 교통 접근성이 높은 덕분에 월리는 최적의 전원주택단지로도 손꼽힌다. 양양군이 남대천 강변권역 도심 확장을 위해 추진해 온 대지조성사업의 일반인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월리의 잠재 가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양양의 '강남' 스타일을 꿈꾸며

양양 시내에 인접한 마을이지만 월리의 개발 속도는 생각보다 더딘 편이다. 군사 보호 시설 구역에 속하다 보니 개발 제한에 부딪혀 도시계획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월리 일원에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상 20층까지 건물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구탄봉 산책로를 연계한 둘레길 조성도 생각했었는데, 개발 제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이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 같아요. 각종 관공서도 들어서고 길도 넓어지면 월리를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 김익환 이장」

오래전 양양의 '영등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월리는 이제 양양의 '강남'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져본다. 양양의 특색을 살린 식당과 개성 있는 카페가 들어선 월리에 외지인 방문이 늘어나면서 '핫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마을에서 가업을 이어 과수 농사를 지으며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농부 김명준 씨는 **'양양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생각보다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 마을의 구옥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한다면) 근처에 식당이나 카페들과 상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라고 전망한다.

월리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마을의 미래이다. 마을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마을 구성원이 되어 더불어 성장하길 꿈꾼다. 달이 차오르듯 월리 주민들의 희망도 차올라 완연한 보름달로 완성되는 모습을 그려본다.

〈**글 · 사진** : 편집부〉

교육가족과

지역교육공동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 드립니다

부 서 : 교육가족과
규 모 : 4팀 37명
업무팀: 평생교육, 여성가족, 장애인복지, 드림청소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교육가족과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서다.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고, 넓게 아우르는 교육가족과의 업무 현장을 찾았다.

평생교육 날개를 달고 거듭난 교육가족과

교육가족과는 지난해 10월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됐다. 기존 '건강가족과'에서 건강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고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던 평생교육 업무가 확대돼 교육가족과에 합류했다.

평생교육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복지과의 장애인 복지 업무도 교육가족과로 이관돼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을 다 같이 아우르는 부서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지난 4월 또 한차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던 양양군 여성회관의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됐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평생학습관에 둥지를 튼 교육가족과도 양양군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새로운 부서로 거듭나게 됐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밀착형 부서

교육가족과는 이순애 과장을 비롯해 평생교육, 여성가족, 장애인복지, 드림청소년 4개 팀, 총 37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돼 있다.

조직개편으로 업무 비중이 커진 평생교육팀은 학교교육지원과 함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됐다. 바이올린, 서예, 바둑, 한글 문해교육 등 19개 과목의 다양한 교육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내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팀의 주요 업무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어린이집 관리,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양양군 가족센터 운영 등 여성의 권리 강화와 사회참여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창업을 원할 경우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팀은 양양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자립재활 지원을 돕고 있다. 특히 관내 장애인 관련 협회 가입을 유도해서 일자리 정보나 장애인 정책 안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식물공장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인 〈스마트 팜〉 구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드림청소년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등 관내 아동 · 청소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교육 외에 양양 관내에서 누릴 수 없는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위주로 아동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2021년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 또한 크다.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 중

교육가족과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다.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카페를 창업하고, 창업컨설팅과 창업자 멘토링 지원으로 도시락&반찬가게가 문을 여는가 하면, 펫푸드 전문가과정을 마치고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창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면 부서 직원들의 보람도 크다.

교육가족과는 2023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 기본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순애 과장은 주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교육가족과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방향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있는 거니까, 우리 부서를 많이 찾아주세요."**

오는 9월 24일 양양남대천 송이조각공원에서 프리마켓 형식의 '뚝방마켓'이 열린다.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의 장으로 마련했다. 기존 여성회관의 이미지를 벗고 평생학습관으로써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위해서다.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주민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지역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져, 양양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군민 진료 협력병원 안내

경희의료원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업무협약내용

- 건강정보, 건강상담 서비스
- 만성질환 예방 및 중증질환 치료 상담
- 진료비 우대
  -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 검진20%, 정밀검진 10% 감면
  - 비급여 감면(병원 및 항목별 감면)

등록 안내

문의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 (☎02-958-2997~8)
동서건강증진센터(☎02-958-8711~3)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업무협약내용

- 선택진료비 20% 감면
- 비급여(일부) 10% {MRI, sono(초음파)}
- 종합검진비 10%
- 입원시 병실 우선 배정 등 필요시 별도 협의

등록 안내

문의 : 원무부 (☎031-910-7456)
총무부 (☎031-910-7515)

한양대학교병원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업무협약내용

- 진료절차에 따른 편의제공 및 사전예약
- 지역주민대상 건강검진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의뢰 시 감면 혜택
- 관광시설 이용 등 편의제공
- 지역 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록 안내

문의 : 대표전화 (☎02-2290-8114)
건강검진예약 (☎02-2290-9550~2)

양양군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서무 (☎033-670-2224)

양양군의회 간담회 개최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급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8월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양군 자치행정과로부터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급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군민들에게 1인당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군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경찰서 신축 현황 및 양양군 지원 계획

또한 양양경찰서 신축 현황과 양양군 지원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양양경찰서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라 양양군이 토지매입과 기존 마을안길 우회도로 개설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의 숙원인 양양경찰서가 하루빨리 건립되어, 유동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양양의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재경 양양학사 설립 및 장학기금 200억 조성 계획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재경 양양학사 건립과 장학기금 200억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대학 밀집지역에 양양학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인재들에게 양질의 숙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양양학사 설립 및 효과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군민 모금 운동을 통한 장학기금 200억 조성을 목표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지원받을 요건이 되어도 혜택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인재육성 장학사업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현재 양양학사 건립에 대한 세부계획이 구상 중이므로, 여러 방안들을 비교 · 검토하고 계획이 구체화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낙산해변 싱크홀 현장 방문 및 대책 당부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3일, 낙산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영혈사(靈穴寺)의 영천(靈泉)에 얽힌 설화

영혈사 금당에 모셔진 원효대사 진영

원효가 설악산 관모봉 동남쪽 명당에 영혈사를 세웠다.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에 원효는 신라의 경주궁궐 앞 거리에서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라고 소리 높이 노래하니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를 요석궁(瑤石宮)으로 맞아드려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요석공주와 정을 맺게 하였다.

영민한 설총(薛聰)의 아비가 된 원효는 양양의 관음굴에서 관음진신을 친견하지 못하고 명산인 설악산에 들어가 관모봉 동남쪽 기슭의 명당자리에 신라 31대 신문왕 9년(689년)에 영혈사를 짓게 하였다.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원효가 영천을 찾고서 절 이름을 영혈사라 하다.

절을 일으켜 세우고 보니 만물의 생장에 절대 필요한 샘물이 없어 절 근처에 샘이 날 만한 곳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샘을 얻을 방도가 없자 원효대사는 밤낮으로 부처님께 샘이 솟는 곳을 찾아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절 근처 한곳을 가르쳐주며 "이곳을 파면 물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다. 이 샘은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여 솟는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아무리 가물거나 장마가 져도 이 샘은 물량이 변동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샘물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영혈사

꿈에서 깨어난 대사는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장소에 가서 샘터를 팠더니 과연 맑은 샘이 솟아났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샘물의 양이 일정하게 솟아나므로 이 샘을 영천(靈泉)이라 이름하고, 이 절 이름도 영혈사(靈穴寺)라 부르게 되었다.

원효가 영혈사의 영천을 홍련암(紅蓮庵)에 끌어온 샘터의 설화

원효는 영혈사를 세운 뒤에 낙산사에 가서 한때 홍련암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 암자에 식수가 없어 낙산사 본사의 샘물을 길러다가 먹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사는 이곳을 찾아드는 신도와 승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샘을 하나 찾아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며칠을 두고 홍련암 근처를 여기저기 파보았으나 샘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전에 영혈사에서 샘 때문에 고생할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홍련암 옆 바른쪽에 샘터가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런데 그 샘물줄기는 영혈사의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의 물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일러주곤 어디론지 사라졌다. 대사는 잠에서 깬 그 날 새벽에 일어나 백발노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서 파보니 과연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물맛 또한 영혈사의 영천 물맛과 똑같았다. 이 샘이 지금도 홍련암 옆에 있는 바로 그 샘물이라고 전한다.

영혈사의 영천과 낙산사 홍련암과의 역학관계

대사는 지난날 영혈사의 영천을 얻을 때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꿈 생각이 뇌리에 스친다. '만약 그 샘물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준 말의 생각에 가슴이 철렁한다. 낙산사는 대찰이니 더 번창하지 않아도 좋거니와 또한 홍련암도 식수의 불편함이 있으나 수고로울 뿐 견딜만하였었는데, 모처럼 세워놓은 영혈사가 번창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홍련암의 샘을 막아버리기로 작정하고서 샘이 터져 나온 샘구멍을 막으려고 온갖 방도를 다 썼으나 한번 터져 나온 샘구멍은 막을 수가 없어서 샘터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대사는 영천의 물이 정말로 반으로 줄었는가를 알아보려고 다음 날 행장을 꾸려 달음질쳐 영혈사에 다다르니 영혈사의 중들이 울상이 되어 "어제 갑자기 영천의 샘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우리들의 식수를 이어줄 정도밖에 되지 않겠으며, 예불하러 찾아오는 신도들의 용수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전과 같이 샘이 솟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영혈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라고들 한다.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영천에 가보니 과연 샘이 반으로 줄어 있어 뉘우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별도리가 없다고 홀로 탄식하였다.

매년 석가탄일에는 영혈사에도 등불이 불야성을 이룬다.

영천의 물을 홍련암으로 반이나 보내준 탓일까? 영혈사는 낙산사처럼 크게 번창하지 못한 채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듯 한적하나 6 · 25전쟁 때 설악산지구 전투에서 숨져간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셔 둔 지장전(地藏殿)이 있어 해마다 석가탄신일에 인근 부대의 국군장병들이 참여하여 호국영령 천도제를 여는 호국의 사찰로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영혈사 합동위령제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설악산곰의하루〉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주】: 영혈사는 사찰 명칭이 영혈(靈穴)이어서 "영험한 굴"이 있다는 것인데 이곳에는 영천(靈泉)이라 하여 샘이 솟는 바위가 있어 영혈사라 이름하였다. 숙종 16년(1690) 사승(寺僧) 취원(聚遠)이 영혈사를 중건하고 "영천사"라 개칭한 바 있으며, 고종 24년(1887) 사승 지화(知和), 도윤(道允)이 영천사를 중수하면서 다시 "영혈사"로 고쳤다. 신령스러운 샘(泉)에서는 깨끗하고 맛좋은 약수가 솟아나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양양뉴스 YANGYANG NEWS

모든 군민에게 추석 전까지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20만원 지급

9월 초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 추석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배려하여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지급결정일(2022년 8월 1일 0시)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중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양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총 소요예산은 56억 원이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며, 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비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인은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선불카드로 즉시 수령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로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핑대회, 양양군 해변 전역에서 개최

2022년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핑대회가 8월부터 10월까지 죽도해변을 비롯한 양양군 해변 전역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서핑대회를 올해 재개해 3개월 동안 모두 5회에 걸쳐 6일 동안 예선 및 결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서핑대회는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대회로 해양수산부, 강원도, 양양군이 함께 주최하고 강원도서핑협회가 주관하며, 선수와 동호인 등 300여명과 참관자(온라인 포함) 100,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양양군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2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 · 도 255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2008년 시작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한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보건사업 계획수립과 실행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만 19세 성인 8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조사원 6명이 표본가구에 직접 방문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완료한 주민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군민 대상으로 2023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접수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사업규모는 모두 7억 원으로 사업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9월 16일까지로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 · 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 실시

양양군은 빈집의 노후화 및 관리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빈집 실태조사 추진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전기나 상수도를 쓰지 않는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들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빈집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양양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데, 전기 · 상수도 자료 등을 통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추출한 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빈집여부와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빈집 발생 사유, 빈집의 등급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읍 · 면별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양양군은 8월 18일부터 6개 읍 ·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 · 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 ·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 · 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오며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지만,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취득자격 심사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책 속의 세상
9월 책이야기

그 편지에 마음을 볶았다
| 조금숙, 선무영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 8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골로 가겠다'고 설득하는 아들과 '생각보다 시골살이는 만만하지 않다'고 말리는 농부 엄마가 나눈 편지를 엮은 에세이.

10년 차 농부인 엄마 조금숙은 도시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아들의 벼락같은 귀농 선언에 한숨이 터진다. 심란한 엄마에게 아들 선무영은 고백한다. 진정한 행복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엄마와 아들의 대화는 계절을 따라 더 깊고 투명해진다. 현재의 고민과 과거 어린 시절의 이야기, 미처 공유하지 않았던 가족사,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사뭇 진지한 대담으로 넓게 가지를 뻗어나간다.

걱정 많은 부모를 설득한 경험, 고집스러운 자녀를 말려본 경험이 있는 독자의 내밀한 마음을 건드리고 공감을 자아낼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처음에 네가 시골에 온다고 할 때,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했었어. 그런데 널 보며 다시 배웠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걸. 비 젖은 길에 홀로 켜있는 가로등을 보며,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한다. 붉은 고추가 마지막 빛을 더해 가고 있다. 가을이다.」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리라
| 임이랑 지음
| 수오서재
| 2022. 8월

누구나 한구석은 예민하고 날카롭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뾰족함을
감싸 안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나의 뾰족함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 본문 중에서

마음은 웃긴다. 웃기고 까다롭다. 행복한 순간 곧 다가올 낙하를 기다린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지만 불안만은 그대로다. 아니 점점 더 커진다. 다가올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평화로운 순간에도 삶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 도사리고 있을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일상에 대해.

불안과 우울, 슬픔과 혐오를 이야기하는 임이랑의 문장들은 신기하게도 위로가 되어 마음에 안착한다. 그의 글은 책 너머에 있는, 모두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 삶이 하찮고 너절할 때나, 빛나고 생기로울 때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 자기혐오와 자기애를 오가며 스스로 존재에 의문을 멈추지 않는 동료들'이라고, '내가 여기에 있고 당신이 거기에 있어 다행'이라고, 책을 읽다 보면 그가 '불안'이라고 쓴 마음들이 어느새 위안, 평안, 연대, 안녕으로 다가온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공조2_인터내셔날

쥬라기캅스_공룡시대 대모험

귀멸의칼날_장구저택편

늑대사냥

정직한 후보2

짱구는 못말려_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건강알리미

우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

6대 방역수칙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벗는 시간은 짧게

-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대한 줄입니다.**

* 실내 음식물 섭취 등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줄이기

-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경우 증상 발생 시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 식사 등을 최소화합니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 코로나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합니다.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는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 특히,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손잡이, 스위치, 리모컨 등)**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합니다.
- 특히,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접종 : 1·2차

▲5세 이상 접종 가능, ▲특히 고령층은 반드시 접종 필요

추가접종 : 3·4차

▲5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학적시설*에 적극 권고

* 요양병원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등 노숙인 생활시설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이온바이오	2명	소금제조원	1일8시간(주5일)	연2,800만원이상(협의)
그랑블루 글램핑아영장	2명	숙박시설 청소원	09:30~18:00(주6일)	월210만원이상(협의)
㈜스피어테크	1명	화장품연구원	09:00~18:00(주5일)	연2,800만원
	1명	화장품제조 생산관리	09:00~18:00(주5일)	시급 9,160원이상(협의)
KAC공항서비스㈜ (양양국제공항)	2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기간제)	6시~22시 1일 8시간 스케줄근무 (주5일)	월215만원~230만원
	1명	통신시설 유지보수원(기간제)		월215만원~230만원
	1명	미화원(기간제)		215만원~228만원
효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3명	재가요양보호사	1일3시간(주5일)	시급12,000원
㈜신우그린	5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8:00~17:00(토요격주)	연3,000만원
대일이엔피	1명	납품운전원(대형면허 필수)	08:30~20:00(주5일)	연3,500만원
수산영어조합법인	1명	카페종업원	10:00~19:00(주6일)	월230만원
인향재가 노인복지센터	10명	재가요양보호사	시간협의(주6일)	시급11,800원
무산복지재단	1명	사회복지사(경력자)	10:00~19:00(주5일)	월204만원
공립이솝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09:00~18:00(주5일)	월201만원이상(협의)
	1명	연장반 보육교사	15:00~19:30(주5일)	월102만원
주식회사 윤진	1명	배송 · 납품운전원	08:30~18:00(주6일)	월280만원

지방하천(양양남대천) 야영 ·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안내

강원도 양양군 지방하천(양양남대천) 일부 구간이 「하천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야영 · 취사행위 금지지역 하천 및 구간

하천명	구분	구 간		연 장
		시 점	종 점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점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	L=5.2km

야영 · 취사행위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연중, 2) 금지행위 : 야영 및 취사행위

문의사항 양양군청 남대천보전과 생태보전팀 (☎033-670-1714)

정보꾸러미

2022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10월)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10월	10. 4. ~ 10. 27. 주간 (화목) 야간 (월,수,목)	9. 26. ~ 9. 30.	(주간) 한글 입문반(한글의 기본과정)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교육장소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교육인원 각반12명(선착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교육시간 (주간반) 10:00~12:00(화, 목) / (야간반) 18:30~20:30(월, 수, 목)
신청방법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치매조기선별검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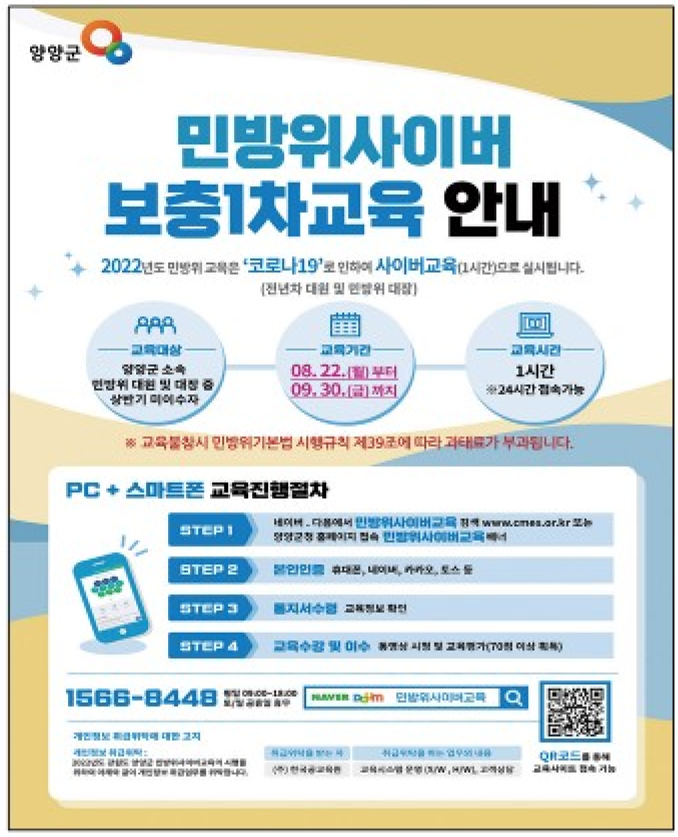
기 간 연중(월~금)
장 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 상 지역주민(만60세이상 어르신)
– 전수조사 대상 : 만75세 어르신(1947년생)
내 용 치매조기선별검사, 교육 및 상담, 인지저하자 정밀검진의뢰(검사비 지원), 홍보물품 제공(파스 등)
문의사항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033-670-2854, 2986)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뚝방마켓" 개최

행사일시 2022. 9. 24. 10:00 ~ 17:00
행사장소 양양송이조각공원
행사내용
– 새일센터를 통한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아이템 홍보 · 판매
– 새일센터 홍보 및 구인구직 등록
참 여 팀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품 목 샌드, 누룽지, 꽃차, 컵밥, 놀잇감 키트, 문구, 소품, 다육식물, 베이커리, 카이피라, 음료 등
부대행사 취업타로 및 기린뮤직 꿈꾸는 연주회 등
문의사항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70-2890~3, 2945)

정보꾸러미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도와 손 JOB GO 취업 성공하자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
9.14 수 -9.28 수
온라인 메타버스 박람회
9.15 목 -9.17 토
오프라인 박람회
9.14 수 횡성 국민체육센터
9.19 월 강릉 아이스아레나
9.23 금 춘천 춘천농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9.28 수 원주 국민체육센터
메타버스 개막식 · 취업오디션 · 채용면접 · 직무특강 · 채용상담 · 취업컨설팅 · 채용설명회



양양군
민방위사이버
보충1차교육 안내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실시됩니다.
(전년차 대원 및 민방위 대장)
교육대상
양양군 소속 민방위 대원 및 대장 중 상반기 미이수자
교육기간
08. 22.(월) 부터
09. 30.(금) 까지
교육시간
1시간
※24시간 접속가능
※ 교육불참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 + 스마트폰 교육진행절차
STEP 1
STEP 2 본인인증 휴대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STEP 3 통지서수령
STEP 4 교육수강 및 이수
1566-8448
민방위사이버교육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기 공지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01 비우고
02 떼고
03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 양양 송이 축제
송이, 즐기러 올(all)래?
with 전통시장
2022. 9. 30. 금 ~ 10. 2. 일 3일간
강원도 양양군 전통시장 및 남대천 일원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1인당 20만원 지급!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급 안내

신청기간 2022. 9. 2. ~ 9. 30.(4주)

지급액 1인당 20만원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022. 8. 1.)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결혼 이민자(F6)·영주 체류자(F5)

※ 7월 31일 24시 이후 타 시군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 대상자가 아님

지급수단

일반인 선불카드 지급

생계급여수급자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를 계좌로 현금 입금 (단, 압류방지전용 계좌 소지자는 선불카드 지급)

신청방법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단, 동거인은 별도 신청)

신청장소

1차 2022. 9. 2.(금) ~ 9. 8.(목) 처음 5일간 기간 중 마을별 1~2일 지정, 출장 현장 지급 (추후 공지)

장소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구비서류 수령자 신분증, 신청서 (위임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2차 2022. 9. 13.(화) ~ 9. 30.(금) 마을 단위 현장 지급 기간 이후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 선불카드 수령

대리신청 (세대원, 미성년자)

성인 세대원 누구나 세대를 대표하여 일괄 수령 가능 (세대주가 아니어도 성인이면 가능)

※ 위임인 신분증 및 신청서에 위임인 서명, 개인정보이용 동의 필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인정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지원금 사용 기한

2022. 12. 31.까지 (잔액 환급 불가) 양양군 관내의 카드가맹점에서만 사용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사용제한

문의처 양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총무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 ☎ 033-670-2221
양양읍사무소 : ☎ 033-670-2611, 2615
서 면 사 무 소 : ☎ 033-670-2621, 2622
손양면사무소 : ☎ 033-670-2630, 2635
현북면사무소 : ☎ 033-670-2640, 2642
현남면사무소 : ☎ 033-670-2650, 2402
강현면사무소 : ☎ 033-670-2660, 2408